

세이비어 교회 소식

-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교회 광고
 - 주일예배는 현장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진행됩니다.
 - 수요일예배와 토요 새벽기도회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 교회 현장예배에 참여하실 때 발열 체크를 하신 후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추수감사주일 안내(11월 22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올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개인별로 감사의 제목들을 추수감사 헌금봉투에 적어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주 수요일예배는 추수감사절 연휴로 쉽니다.
- 밀알의 밤(뉴욕 밀알, 12월 5일 토요일 저녁 5~7시까지)

올 해 밀알의 밤 행사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링크를 보내 드립니다. Youtube: NY Milal Connet

11월 봉사위원

일자	주일1부	주일 2부	친 교	안 내
11/22		김유신		
11/29	이경희	허도행		

예배 및 모임 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1부)	주일 오전 9시 30분	본당
주일예배(2부)	주일 오전 11시	본당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토 새벽 6:30분	본당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시 30분	주일학교 예배실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시 30분	중고등부 예배실
성가연습	주일 오전 9시 30분	성가대실
성경공부	목요일 오전 10시 토요일 오전 8시	1층 친교실
새 가족반	주일 예배 후	1층 친교실

이번 주 설교 요약

제목: 감사의 이유(눈 뜬 자) 본문: 누가복음 17장 11~19절

기도제목: 1. 신앙의 흐름 위에 서 있는 나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소서.

2. 신앙의 눈을 뜬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3.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들어가는 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킨 첫 해가 1621년도입니다. 그리고 보니 올해 2020년도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추수감사절 400주년인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미국 땅에서 추수감사절이 400번 지켜졌습니다. 최초의 청교도 이민은 메이플라워라는 이름의 배에 모두 102명이 타고 보스톤에 12월에 도착했지만 배를 타고 오면서 죽고, 겨울을 보내면서 죽고 102중에 44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추위와 굶주림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쥐 고양이 개도 잡아 먹으면서 버티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아 있는 사람들끼리 보스톤 지역에 정착을 하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가을에 열매를 거둔 후에, 그동안 도움을 준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초라하지만 인디언들에게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1. 감사의 이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이방인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다시 찾아와 감사를 하려는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방인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를 드리는 장면은 그렇게 감동적인 장면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감사했을 때, 예수님은 이 사람의 감사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다른 9명과 비교하면서 이 사람의 감사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이방인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감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15절 말씀 '그 중의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보고'라는 단어입니다. 보았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시각 장애인이 눈을 떴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된 '보고'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단어는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할 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보게 하고' 바로 여기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방인 문둥병자가 눈이 떠졌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몸이 느껴 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들었던 이야기가 사실이구나! 이 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야이시구나! 막구나! 이 분이 진짜 진리이구나! 이방인 문둥병자는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눈이 떠 졌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눈이 떠진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눈이 닫혀 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2. 눈 뜬 자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떴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눈이 떠진 사람은 좋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지만 어려운 일,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눈이 떠졌는가? 내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눈이 떠져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시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며,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눈이 활짝 떠 지셨나요? 살짝? 눈이 떠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가는 말

미국과 남미의 역사를 비교하면서, 왜 미국이 남미와 같은 나라같이 되지 않았는가? 미국은 혈금을 찾는 사람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신앙의 눈이 뜨인 사람들이 미국 땅에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해 주신 결과라고 믿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주일은 다른 해 보다 특별합니다. 마치 400년 전 초라하고 참담한 상황 가운데 준비해서 추수감사예배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해 추수감사주일의 상황은 세상 적인 눈으로 볼 때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나요? 다들 힘든 상황 속에서 하루 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눈이 떠진 자들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살아가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으로 감사하고, 지금도 변함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

	1부: 오전 10시 2부: 오전 11시 30분	수요예배(8시PM)
예배로 부르심 Call to Worship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경배와 찬양 여호수아서 강해 말씀: 정요한 목사 당분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 송영 Invocation	사회자	
▲ 고백의 기도 Confession of Sin	다같이 Together	
▲ 찬 송 Hymn	310장	
▲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Apostles' Creed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64번(감사절)	
찬 송 Hymn	308장	
기 도(Prayer)	1부: 안영남 권사 2부: 김유신 집사	
성 경 Scripture	누가복음 17장 11~19절	
설 교 Message	감사의 이유	
▲ 헌 금 Offering		
▲ 찬 송 Hymn	364장	
▲ 축 도 Benediction	정요한 목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교회 후원 선교사

김덕래, 김홍덕, 정철웅, 이상진,

교회 지원 단체

뉴욕 밀알선교단, 뉴욕 농아인 교회, 주님의 식탁
한밀교회(한국)

담임목사 정요한

시무장로 최홍만 배한우

교육전도사 김호진 Paul Lee 지휘자/반주자 김타마라

45-25 162nd St Flushing NY 11358

Tel : (929) 225-0656 / www.mysaviorchurch.com

▲ 표는 가능하시면 일어나심 (Standing, If possible)